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6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 문학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수연



# 문학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hrough the  
Discussions about Literature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수연

# 문학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혜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수연

# 김수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영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차

<b>I. 서론</b> .....	<b>1</b>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4
<b>II. 이론적 배경</b> .....	<b>8</b>
1. 비판적 사고 개념 및 구성 요소.....	8
(1) 비판적 사고 개념.....	8
(2) 비판적 사고 구성요소.....	14
(가) 건전한 회의성.....	20
(나) 다양성.....	22
(다) 객관성.....	23
(라) 상위인지성.....	24
(마) 통합성.....	26
2. 문학토론과 비판적 사고.....	28
(1) 문학토론의 의미와 사회적 구성.....	28
(2) 문학토론의 다양성과 다의성.....	30
(3) 문학토론의 유형과 특성.....	34
(4) 문학토론의 형식과 절차.....	37
<b>III. 연구방법 및 절차</b> .....	<b>40</b>
1. 연구 대상.....	40
2. 연구 절차.....	40

IV. 수업분석 및 논의.....	44
1. 건전한 회의성: 성찰, 변화 모색.....	44
2. 다양성: 유연성, 다각도 시선.....	48
3. 객관성: 신뢰, 타당성.....	53
4. 상위인지성: 점검, 보완.....	58
5. 통합성: 새로운 관점, 확장된 시야.....	63
V. 제언 및 결론.....	75
참고문헌.....	79
부록.....	83
ABSTRACT.....	93



## 표 목차

<표-1>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	11
<표-2> 비판적 사고 구성 요인.....	16
<표-3> 교사의 예상 질문.....	36
<표-4> 김상욱의 토론 절차.....	38
<표-5> 실제 수업에 활용할 토론 방식.....	39
<표-6> 토론 방식에 따른 수업 절차.....	41
<표-7> 상위인지성 체크리스트 문항과 1차시 수업 결과.....	59
<표-8> 상위인지성 2차시 수업 결과.....	60
<표-9> 상위인지성 3차시 수업 결과.....	62

## 도식 목차

<도식-1>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태도.....	28
----------------------------	----

## 국문 초록

### 문학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문학토론 활동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다고 보고, 문학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의 정의,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학 교육은 학생들과 문학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둔다. 사고 능력 가운데 다양한 갈등과 쟁점들이 길항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문학토론은 학생과 문학작품과의 대화,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사고력을 촉발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문학작품은 특정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의 전개를 통해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서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라든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을 전개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 I 장에서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의 문제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비판적 사고 교육 역시 암기와 지식 학습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론과 현장의 균형 있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연구가 필요하다 보았고,

이제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으로 보완하여 현장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정의와 구성요소, 문학 토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논의와 토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의 정의와 요소를 정했으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는 전제를 논증하였다.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를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다양한 생각을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요소를 ‘건전한 회의성’, ‘다양성’, ‘객관성’, ‘상위인지성’, ‘통합성’ 5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행위를 문학 토론이라 지칭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게 ‘텍스트 읽기’, ‘논제제시’, ‘토론하기’, ‘역할 바꿔 토론하기’, ‘글쓰기’, ‘점검하기’로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비판적 사고와 요소, 토론의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지 설명하고자 한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문학 작품 중에서 동화를 선택하였다. 동화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접하기 쉬우면서도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의 수업절차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비판적 사고 구성요소에 따라 수업을 분석하였다. 연구 집단의 학생들은 대체로 각각의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 중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다양하게 소통, 즉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힘이 점차 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 요소 별로 학생들의 발언을 나눠보았는데, 첫 실험 때보다 마지막 실험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Ⅴ장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안으로 다양한 작품 안에서 유익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

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각각의 영역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영역들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설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든 연구 집단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체로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이라는 행위 자체도 어려워했지만, 세 번의 반복된 실험을 실행한 후에는 토론 활동에 적응해나갔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오류를 점검하기도 하고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 생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발전되고 새로운 생각(관점)은 없는지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토론의 방법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 주요어: 국어 교육, 문학 교육, 비판적 사고, 문학 토론, 통합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세기 현재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는 동시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적인 편견보다 올바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듣고 얻고 싶어 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넓은 시야와 통합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관련하여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그 성격상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적응’을 위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를 위한 교육이다. 적응 교육은 기존의 지식·규범·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는 교육이고, 창조 교육은 기존의 지식·규범·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개혁이나 개선을 추구하는 교육이다.”<sup>1)</sup>

“교육에서 요구하는 적응과 창조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적응 교육 보다는 창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 자체를 암기하는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차원을 넘어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

1) 서인화, 「토론 수업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31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유의미한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종합해 가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를 사고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국어 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sup>2)</sup>

그 중 비판적 사고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은 국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어교육은 작품을 읽고 분석하고 암기하며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나갈 뿐,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동기 또는 문제를 풀어나가며 상대방과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상대방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등에 대한 배움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생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생각들을 통합해봄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다양한 사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국어 교육의 각 영역에서는 비판적 사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교육철학 논의 중 주된 이슈로 비판적 사고의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박사학위 논문만 약 3,500개에 이르고 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논리적 사고기술 교수에 해당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것을 보급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한국 교육 개발원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sup>3)</sup>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 중 문학 작품을 통한 토론을 선택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각 영역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모든 국어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교

2) 서인화(2009), 앞의 논문, p.31.

3) 성일제 등,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최석민, 「H. Siegel의 비판적 사고 개념 분석」, 『교육철학』 제16집, 1998, pp.299~300에서 재인용.

육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통합해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려고 하면 그 관점을 펼치기 쉬운 설명문이나 논설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문학 작품 중 동화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동화는 이야기의 소재나 인물이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읽기 교육과 말하기 등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토론인가. “토론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토론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은 이미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4)</sup>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토론을 이용하여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문학 작품 속에서 논쟁거리를 찾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다양함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확장된 생각들을 해보게끔 하려고 한다. 또한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학토론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논의의 시작은 우선 제Ⅱ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개념, 문학토론의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비판적 사고의 정의와 구성요소, 문학토론의 절차를 세우고자 한다. 이후, 제Ⅲ장에서는 실험의 대상,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 제Ⅳ장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함양되었는지 실제 수업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4) 김보라, 「문학토론 수업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1.

## 2. 선행 연구 검토

문학토론과 관련된 연구는 토론의 가치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토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학토론,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토론을 살펴보기 위한 토론 등으로 나뉘질 수 있다.

먼저 연구한 논문에서는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거나 토론의 가치와 효과를 살펴보고 있었다. 김상옥<sup>5)</sup>은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학토론은 문학 작품에 관해 학생들이 생성한 담화를 총칭하여 토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책 읽어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고, 이 토론활동을 모둠활동을 통한 문학토론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문학 작품을 지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를 통한 문학토론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책 읽어주기 활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토론의 한 양상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인화<sup>6)</sup>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문학토론을 제시하였다. 문학토론의 정의는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자기 해석의 심화와 확장을 피하고 공동체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특성을 가졌으며, 핵심적 요소로 해석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문학토론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정재림<sup>7)</sup>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토론 사례를 통해 문학 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문학토론이 해석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 문학토론이 학생의 문학 이해 능력과 사유 능력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 누적적으로

5) 김상옥,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 -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0호, 2011.

6) 이인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4호, 2013.

7) 정재림, 「문학 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 - 박완서 소설에 대한 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5집, 2014.



작용하며 학생의 문학 이해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의 경우 문학 감상문 쓰기의 병행이 효과적이라는 것 등의 결론을 얻어냈다.

동화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 연구로는 한지혜, 최유미가 있다. 하지만 유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한지혜<sup>8)</sup>는 동화를 활용하여 유치원생들의 듣기와 말하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토론활동은 동화를 제시하고 질문을 만든 후, 관련 있는 질문들을 묶고 토론을 위한 질문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동화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진행해보니 동화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궁금한 이유를 말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깊이 있게 사고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유아들은 토론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쓰기, 그리기 활동도 촉진하였다.

최유미<sup>9)</sup>는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하여 토론활동이 비판적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관점 인식하기, 생각을 검증하기, 판단하여 이유말하기, 결과를 예측하기, 타인에게 적용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검사하였다. 결과는 타인에게 적용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빼고 나머지 항목에서 동화를 활용한 토론이 유아에게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문학토론을 하여 비판적 사고 또는 비판적 읽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로는 한광영, 김정희, 고정미가 있다. 한광영<sup>10)</sup>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유정의 <봄봄>, 이태준의 <돌다리> 등 책을 읽고 토론을 하여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킨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독서 토론은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상호 토론을 하는 것

8) 한지혜, 「동화를 활용한 토론활동이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9) 최유미, 「동화를 활용한 토론활동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0) 한광영, 「독서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으로서 토론 과정 중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보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토론을 택했다. 그는 비판적 사고를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신뢰성·충분성,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의미 파악, 주장이나 진술에 개재된 편견을 탐지하기, 숨겨진 의미와 가정을 확인하기, 5가지로 평가하여 독서토론이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킨다고 보았다.

김정희<sup>11)</sup>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판적 읽기 지도 요소를 구체화 하였다. 즉, 비판적 읽기 지도 요소를 바탕으로 통해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기, 주제나 관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글의 논증 방식 파악하기,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기, 4가지의 읽기 지도 요소를 가지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수·학습 모형이 고등학생 수준에 제한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고정미<sup>12)</sup>는 비판적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손님과 어머니>, <운수 좋은날> 등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학생들의 반성적 회의에 의해 재생산하는 토의망식 토론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책의 내용을 미리 짐작해가며 읽고, ‘토의망’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찬성과 이유를 적고 토론을 진행한다. 처음엔 1:1 토론 후, 모둠 토론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토의망식 토론 활동을 활용하여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로써 앞서 살펴본 연구로 비판적 사고를 위한 문학 중 동화를 통한 토론은 보통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아가 인지적 발달단계에서 미성

---

11) 김정희,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2) 고정미, 「토의망식 토론을 활용한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 방안」,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숙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하며, 논리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sup>13)</sup>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동화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3) 최유미(2012), 앞의 논문, p.14.

## II. 이론적 배경

### 1. 비판적 사고 개념 및 구성요소

#### (1) 비판적 사고 개념

비판적 사고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 해왔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어 왔다.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은 듀이(J.Dewey)라고 할 수 있다. “듀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How We Think)』라는 책에서 ‘어떤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의 형식을 그것의 근거와 그것이 도달하려는 결론을 비추어 적극적으로 지속적이며 조심스럽게 고려해보는 것이 반성적 사고’라고 정의하였다.”<sup>14)</sup>

그 후 많은 연구가들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다. 현재 비판적 사고 연구가들은 많으나 대표적으로 에니스(R.H. Ennis), 맥팩(J.E. Mcpeck), 폴(R.W. Paul), 시겔(H. Siegel), 립만(M. Lipman)으로 5명을 꼽을 수 있다. “에니스(R.H. Ennis)는 1962년에는 비판적 사고를 ‘진술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sup>15)</sup> “하지만 그 후로, 그의 정의는 단순히 ‘진술’에 대한 평가로만 한정하였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80년대 후반부터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라고 수정한 바 있다.”<sup>16)</sup>

“맥팩(J.E. Mcpeck)은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 의미를 ‘반성적 회의를 가지고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 기능과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자신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맥팩은 비판적 사고가 단지 평가의 내용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일반적인 사고

14) 노경주, 「비판적 사고: 패러다임과 개념」, 『사회과 교육』, 제 41권 1호, 2002, p.56.

15) R. H. Ennis,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in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1962, p.83. 배상식, 「H.Siegel의 비판적 사고 개념」,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63집 제1권, 2001, p.274에서 재인용.

16) 배상식, 「H.Siegel의 비판적 사고 개념」,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63집 제1권, 2001, p.274.

기능(논리적 사고 기능)이 아니라 평가의 내용과 관련된 사고 기능이라 강조한다.”<sup>17)</sup>

듀이와 에니스, 맥펙의 정의를 보면 반성적 사고, 회의적 사고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반성적 사고, 회의적 사고란 성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성찰하며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의 견해에 따라 반성적 사고, 회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건전한 회의, 성찰적인 사고가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폴(R.W. Paul)은 대화적 사고와 도덕적 품성을 강조했다. 비판적 사고 개념을 ‘약한 의미(Weak Sense)’와 ‘강한 의미(Strong Sense)’로 구분했다. 약한 의미는 다른 견해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자신의 편견과 비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 개념과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강한 의미는 숨겨진 논리, 다중의 윤리적 쟁점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sup>18)</sup>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욕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성을 떨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과 숨겨진 논리를 파악하고 윤리적 쟁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를 통한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본 맥펙과 시겔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를 평가적 측면으로 바라본다. “시겔(H. Siegel)은 근거 평가 요소와 비판적 태도를 제시했다. 근거 평가 요소는 신념과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시

17) J. E. McPeck,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p.10, 배상식(2001), 앞의 논문, p.276에서 재인용.

18) 노경주(2002), 앞의 논문, pp.58-59.

결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파악했다.”<sup>19)</sup>

립만도 역시 자기 수정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적 사고, 회의적 사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립만(M. Lipman)은 비판적 사고를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고로서 기준에 의존하고 자기 수정을 하며 맥락에 민감한 사고’로 정의한다.”<sup>20)</sup> “이것은 비판적 사고가 단순히 비판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기준(criteria)에 의거하여 자기 수정과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게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sup>21)</sup>

국내에는 신경림, 김명숙 외의 연구 등이 있다. 신경림은 “관찰, 경험, 반성, 추론, 의사소통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지적으로 잘 훈련된 과정으로서 결과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합리적 행위로 보았다.”<sup>22)</sup>

김명숙 외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사고력 검사에서 준용하게 될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큰 변동 없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였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적-비언어적 자료(진술 등 언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위)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 정의는 다수의 선행 이론 연구를 검토한 후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찾고 대상, 행위, 준거, 그리고 목적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살펴본 뒤 각각의 측면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3)</sup>

19) 노경주(2002), 위의 논문, pp.60-61.

20) 매튜 립만(박진환·김해숙 옮김).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 서울, 2005), p.275, 배상식, 위의 논문, p.275에서 재인용.

21) 배상식(2001), 위의 논문, p.275.

22) 신경림,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1996, p.45.

23) 김명숙 외,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Ⅱ) -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제작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고력 영역<sup>24)</sup>

이름	비판적 사고의 개념
Dewey	어떤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의 형식에 대하여 그것의 근거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조명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는 것(1910)
Ennis	- 진술에 대한 올바른 평가(1962) -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반성적, 합리적 사고(1985)
Facione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와 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며 자기규제적인 판단(1990)
Glaser	어떤 신념이나 형식화된 지식을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와 그것이 제시하는 결론에 비추어 검증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1985)
Halpern	바람직한 결과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인지 기술이나 전략의 사용(2007)
Lipman	①준거를 따르고, ②자기-수정적이며(self-correcting), ③상황에 민감하여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사고(1988)

2002, p.18.

24) 조아미 외,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고력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p.42.

<b>McPeck</b>	합리적 사고의 하위요소이며, 합리적 사고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는 능력(1981)
<b>Pau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증법적 추론 능력을 일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적 편견과 그릇된 정보, 그리고 외적인 간섭 요인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당한 마음의 자세에 터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것(1984)</li> <li>- 상위인지적 측면 강조(1995)</li> <li>-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밀접한 관련성 강조(2006)</li> </ul>
<b>Siegel</b>	신념, 주장,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1988)
<b>김광수</b>	주장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는가를 판단하는 사고(1995)
<b>김명숙, 박정, 김광수</b>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텍스트(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하여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2001)
<b>김명숙, 박정, 김영정, 민찬홍</b>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적·비언어적 자료(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위)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2002)
<b>신경림</b>	관찰, 경험, 반성, 추론, 의사소통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지적으로 잘 훈련된 과정으로서 결과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합리적 행위(1996)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적인 사고 기능과 더불어 성향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본다. 즉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과 사고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기술을 소유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의지란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능력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의지가 발달된 사람은 비판적 사고기술만 숙달한 사람에 비해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모두에서 비판적 사고를 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비판적 사고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결여된다면 비판적 사고결과가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간에 이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비판적 사고기술을 사용하기 어렵다. 물론 분석을 잘하고 논증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분석과 논증만으로 우리 삶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늘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힘)으로 대하는 것이다. 고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방향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능력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된다. 생활에서 비판적 사고를 습관화하여 살아갈 때, 유연성이 발현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최훈은 비판적 사고력의 능력과 태도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독립적이라 했다. “도덕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덕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비판적 사고의 태도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5)</sup>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가 길러지면, 비판적 사고 능

25) 최훈, 「비판적 사고 성향: 그 의미와 수업 방법」, 『철학탐구』 제24집, 2008, p.98.

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비판적 사고란 생각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찰하고, 시각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생각을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 (2) 비판적 사고 구성요소

비판적 사고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부분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능력 사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텔파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Facione, Facione와 Sanchez는 비판적 사고를 진실 추구, 개방성, 분석, 체계성, 비판적 사고의 자신감, 호기심, 성숙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Facione 외(Facione, Sanchez, Facione & Gainen)는 사고성향을 태도, 지적 가치관(intellectual virtues), 그리고 마음의 습관의 복합체라고 정의했다. Facione, Facione와 Sanchez는 제안한 7가지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실추구(Truth-seeking): 진실을 찾고자 하는 성향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지식을 구하고 용기 있게 질문하며, 탐구의 결과가 자신의 이익이나 기대했던 의견을 지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탐구하는 자세에 있어 정직하고 객관적인 성향.

② 개방성(Open-mindedness): 개인적 편견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열린 마음을 지니고 다양한 관점에 관대한 성향.

③ 분석성(Alyticity): 잠재된 개념적 또는 실무적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증재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성

향.

④ 체계성(Systematicity): 조직적인 기술과 집중적인 탐구 성향.

⑤ 비판적 사고의 자신감(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탐구자 자신의 추론 과정을 신뢰하는 성향.

⑥ 탐구성(Inquisitiveness): 개인의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갈망.

⑦ 성숙성(Maturity): 사리분별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으로 일부 문제에 있어 오답의 가능성을 인지한 후 문제에 접근하고 탐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향.”<sup>26)</sup>

김명숙은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성향의 특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가치관, 동기, 태도, 사고습관이 포함된다.”<sup>27)</sup>라고 하였다. “허경철 외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건전한 회의성, 지적 정직, 객관성, 체계성, 그리고 철저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건전한 회의성: 일반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혹은 신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타인과 자신의 사고과정에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② 지적 정직: 어떤 진술이 자신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성향.

③ 객관성: 감정적,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향.

④ 체계성: 논의나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적 일관성으로 유지하려는 성향.

26) 조아미 외(2009), 앞의 논문, p.52.

27) 김명숙,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9, No.1, 2006, p.93.

⑤ 철저성: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결론짓기를 보류하려는 성향.”28)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비판적 성향의 구성 요인들을 <표-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

<표-2> 비판적 사고 구성 요인 -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고력 영역

이름	구성요인
D'Angelo (1971)	① 지적 호기심 ② 객관성 ③ 개방성 ④ 융통성 ⑤ 지적 회의성 ⑥ 지적 정직성 ⑦ 체계성 ⑧ 지속성 ⑨ 결단성 ⑩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
Ennis (1991)	① 진술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② 질문의 요지에 초점 유지하기 ③ 전체상황 고려하기 ④ 이유를 찾고 제시하기

28) 허경철 외,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1990, pp.57~59.

29) 조아미 외(2009), 앞의 논문, pp.5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충분히 정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li> <li>⑥ 대안을 찾기</li> <li>⑦ 상황이 요구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정확히 찾기</li> <li>⑧ 자신의 기본적 신념을 사려 깊게 인식하려고 노력하기</li> <li>⑨ 열린 마음 가지기: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기</li> <li>⑩ 증거와 이유가 불충분할 때 판단을 보류하기</li> <li>⑪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 정하기</li> <li>⑫ 비판적 사고 능력을 사용하기</li> </ul>
<p><b>Facione</b> <b>(199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광범위한 쟁점에 대한 탐구성(inquisitiveness)</li> <li>② 정보에 관심이 있고 밝음</li> <li>③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li> <li>④ 합리적인 탐구 과정을 신뢰</li> <li>⑤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li> <li>⑥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개방성(open-mindedness)</li> <li>⑦ 대안과 의견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li> <li>⑧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는 마음</li> <li>⑨ 추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li> <li>⑩ 자신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중심적 또는 사회중심적 경향성을 직면하는 정직성</li> <li>⑪ 판단을 보류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판단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함</li> <li>⑫ 솔직한 반성을 통해 변화가 정당화될 때 재검토와 수정을 기꺼이 함</li> <li>⑬ 질문이나 관심을 명료하게 진술</li> <li>⑭ 복잡한 것을 다룸에 있어서 질서정연함</li> <li>⑮ 적절하게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부지런함</li> </ul>

	⑯ 증거를 선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합리성 ⑰ 관련 주제에 주의를 집중 ⑱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건디어냄 ⑲ 주제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정확성 추구
<b>Facione &amp; Facione (1992)</b>	① 분석성 ② 개방성 ③ 진실추구 ④ 체계성 ⑤ 자신감 ⑥ 탐구성 ⑦ 성숙성
<b>Paul &amp; Elder (2001)</b>	① 지적 겸손 ② 지적 용기 ③ 지적 감정 이입 ④ 지적 통합 ⑤ 지적 인내 ⑥ 이유에 대한 확신 ⑦ 지적 자율성 ⑧ 지적 공정성
<b>Rubensfield &amp; Scheffer (1999)</b>	① 자신감 ② 상황적 전망 ③ 창의성 ④ 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탐구성</li> <li>⑥ 지적 통합성</li> <li>⑦ 직관</li> <li>⑧ 개방성</li> <li>⑨ 인내</li> <li>⑩ 성찰</li> </ul>
<p><b>Simpson &amp; Courtney (200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편견 없는 마음</li> <li>② 탐구성</li> <li>③ 진실 추구</li> <li>④ 분석</li> <li>⑤ 체계성</li> <li>⑥ 자신감</li> </ul>
<p><b>허경철 외 (199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전한 회의성</li> <li>② 지적 정직</li> <li>③ 객관성</li> <li>④ 체계성</li> <li>⑤ 유보성</li> </ul>
<p><b>윤진 (200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적 열정/호기심</li> <li>② 신중성</li> <li>③ 자신감</li> <li>④ 체계성</li> <li>⑤ 지적 공정성</li> <li>⑥ 건전한 회의성</li> <li>⑦ 객관성</li> </ul>

<b>김명숙</b>  <b>(2006)</b>	①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② 사고의 신중성 ③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④ 근거 확인/합리적 정확성 추구 ⑤ 사고의 개방성 ⑥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⑦ 지적 호기심/끈기 ⑧ 사고의 자기 규정성
---------------------------------	--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정의와 요소들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 중 문헌토론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요소를 추려보면 건전한 회의성, 다양성, 객관성, 상위인지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한 통합성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가) 건전한 회의성

건전한 회의성이란 김명숙 외<sup>30)</sup>에서는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으로 보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진실 추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발견한 내용이 자신의 이익이나 선입견에 반하더라도 사고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특성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경우 기꺼이 자기의 견해를 제고하고 수정하려는 의향, 자기 이익에 대치되더라도 진리에 대한 헌신적 태도, 오랜 신념을 버리는 두려움을 기꺼이 극복하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김기한 외<sup>31)</sup>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 알

30) 김명숙 외(2006), 앞의 논문, p.96.

31) 김기한 외,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연구보고 10-R17, 2010, p.43.



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비록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결과 일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 중 첫 번째를 건전한 회의성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과 신념은 완벽하지 않다. 만약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가 존재한다면 데카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모두 정리되어 단순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아직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우리들의 사고는 늘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확신에 대해 의심하고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그리하면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전한 회의성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며, 비판적 사고로 인해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다.

건전한 회의성은 타인과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내 가치관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타인의 가치관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사람은 성장할 것이다. 타인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비판적 사고로,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전한 회의성은 지적 정직, 탐구심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건전한 회의성은 끊임없는 진리 추구인 궁리와 맞닿아 있다. 회의론자가 아니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아는 것을 의심하는 행위가 결국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회의는 결국 진리를 향한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

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진실을 추구하고 그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내 생각의 오류가 있다면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 (나) 다양성

다양성이란 김명숙 외<sup>32)</sup>에서는 사고의 개방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 또는 자기 자신 주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 특성으론 타인의 비판에 대한 열린 마음, 대다수 문제의 정답이 하나가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기한 외<sup>33)</sup>는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했다. 기꺼이 재고하며 특정한 신념의 지배를 받는 고정성, 독단적 태도, 경직성을 배격하고 다른 관점에 대해 유연성이 있으며 존중하는 태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이란 모든 사물은 하나로 존재하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양성을 향해 발전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사과를 살펴보아도 뉴턴의 사과에서 사과장수의 사과까지 무수한 사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 경직성 등을 배제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받아드리게 되면, 여러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단편적인 생각에 대해선 비판하고 다른 측면, 즉 타인의 사고를 포용하려는 노력을 참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다. 문제 상황 또한 현재 사고로 해결되지 못했다면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점검하는 비판적 사고의 노력

32) 김명숙 외(2006). 앞의 논문. p.97.

33) 김기한 외(2010). 앞의 논문. p.43

이 있으면 해결 가능한 것이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며 여럿이 모여서 뜻을 모의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이 코끼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각자가 바라보는 부분만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비판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서로가 코끼리를 만져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코끼리의 부분을 모아보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진정한 코끼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비판하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올바른 태도를 완성하게 된다. 그럼으로 비판적 사고 요소에는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토론활동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고정적이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지식과 타인의 배경지식을 공유하여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그러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역시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상대와 토론을 통해 고정되어 있던 주관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며, 자극하고, 모순을 드러내고, 보완하면서 질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 (다) 객관성

객관성이란 김명숙 외<sup>34)</sup>에서는 근거 확인/ 합리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떤 주장의 근거, 이유,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증거의 활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사고과정을 거쳐 판단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역시나 사고과정에 이성의 적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특성으로는 근거를 중요시하고 주제나 환경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정확한 문제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

34) 김명숙 외(2006), 앞의 논문, p.96.

김기한 외<sup>35)</sup>는 객관성을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추출하려고 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주체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 사과가 있다면 그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주관과 함께 결합하여 생각이 형성된다. 하지만 외부의 대상, 생각 등과 상관없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늘 주관의 한계와 오류를 지니고 경험한다.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 그 오류는 익숙하다. 사고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잘못된 정보, 관점, 타당하지 않은 근거 등등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수정하고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인과/전후의 사실을 치밀하게 점검하는 객관화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주관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객관적 사고는 타인과 어떠한 대상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야 한다. 사과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듯이, 보다 구체적인 사고에는 정밀한 객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인의 주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활동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주관적인 시선과 감정 등을 배제하고, 제 삼자가 바라볼 때도 정확한 의견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강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 (라) 상위인지성

상위인지란 황희숙<sup>36)</sup>은 일반적 사고 내용 및 사고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로 문제해결력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보았다.

이재승<sup>37)</sup>은 인지와 상위인지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상위인지를 ‘인지를 조절,

35) 김기한 외(2010), 앞의 논문, p.43

36) 황희숙, 「초인지적 학습전략 훈련이 학습전략 사용 및 독해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희숙, 「쓰기계획에서의 상위인지전략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12에서 재인용.

37) 김규선, “국어과교육에서의 인지 이론 수용 양상”,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3집, 1998, pp.19-68, 이재승,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44에서 재인용.

점검, 통제하는 속성'을 지닌 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다. 오종열<sup>38)</sup>은 '인지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과 글 평가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며, 선택된 전략이 과제 수행이나 문제해결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로 상위인지성을 정의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구와 언어를 발명하였으며 그로 인해 문명이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질문이 존재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정직한가?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는 바른가? 나는 내 한계 속에 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등의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 다른 여러 질문들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들의 무수한 생각들은 외부 현상을 보고 해석한 결과물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보호 등으로 대변되는 주관적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류는 자신을 거울처럼 드러다 볼 수 있는 '상위인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나'가 있어야 만이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나'란 나를 감시하며 내 생각에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점검하고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며 평가함으로써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한다. 그런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편집할 수 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상위인지', '또 다른 내'가 판단하고, 점검하며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수정되고 보완된 생각은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올 때, 성숙하고 비

---

38) 이재승(1999), 위의 논문, 이희숙(2000), 위의 논문, p.12에서 재인용.

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고, 통제하며, 수정/보완함으로써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성숙하고 발전된 사고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은 올바른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생각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의 건진함을 위한 ‘또 다른 나’, 즉 ‘상위인지’를 통해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토론활동에서는 토론을 마친 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걸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를 점검 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다.

### (마) 통합성

‘무’는 유를 전제로 규정하는 없음 상태를 말한다. 즉 모든 언어와 규정들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 규정하고 정해진다. 즉 ‘무’만인 상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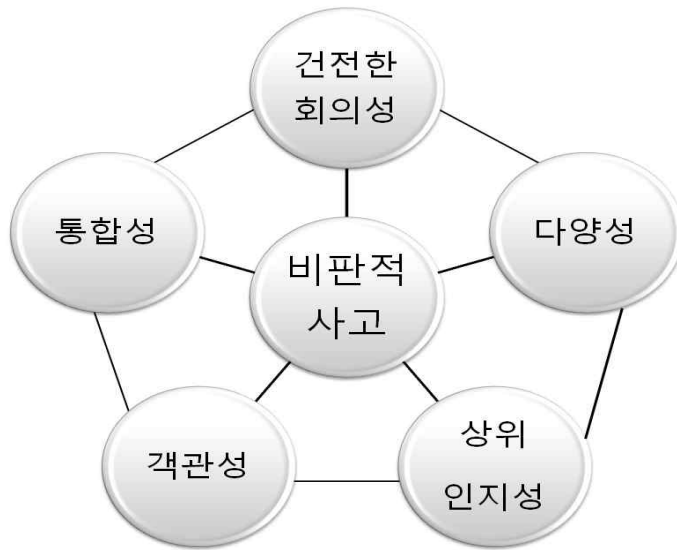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고의 발전과 인간 삶이 성숙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서 내 생각의 크기와 폭을 키워가는 것 일수도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답을 원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들은 인식의 한계를 느끼고 좀 더 발전된 삶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지금 현 상태는 불완전한 것이다. 현재 느끼는 이런 불완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가득 찬 둥근 모양만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에 손잡이와 비움이라는 방식을 더하면 아마도 찾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식에 다른 인식을 통합하여 한계를 극복하여 가는 것이다.

비판적 생각으로써 새로운 관점은 정과 반의 통합, 차이의 통합, 다름의 통합에

서 만들어질 수 있다. 완전히 다르거나, 생각 안에서 발전한 모순이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하여 짓고, 현재의 틀보다 크고 다양한 틀 속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성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구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과 태도 등 다름을 인정하면서 관계 짓고 통합하여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방식을 만들어 가는 힘이다. 어쩌면 가장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당연히 비판적 사고를 할 때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토론활동에서 통합성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 짓고, 통합하면서 좀 더 나은 생각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1>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도식-1>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구성요소

곧, 비판적 사고는 건전한 회의성, 다양성, 객관성, 상위인지성, 통합성, 이 5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소들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요소들이 발생되어야지 비로소 비판적 사고가 함양되는 것이다.

## 2. 문학과론과 비판적 사고

### (1) 문학과론의 의미와 사회적 구성

문학과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문학과론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활동으로 바라보는 듀이의 관점 또는 비고츠키, 바흐친 등등의 논의와 연결된다.”<sup>39)</sup>

“비고츠키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의 사회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한층 진정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비고츠키는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역할에 막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비고츠키의 공간 모형에서도 잘 드러난다.”<sup>40)</sup>

“비고츠키의 공간 모형은 학습의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 국면을 전유와 사회적 영역으로, 두 번째 국면을 변형과 사적 영역으로, 세 번째 국면을 발표와 개인적 영역으로 네 번째 국면을 관습화와 공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들 국면은 서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첫 번째 국면의 경우 사회적 영역이 마주쳐 타자의 관습적인 지식이 사회적으로 접촉하면서 전유되는 과정으로 드러난다.”<sup>41)</sup>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관습적이고 이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그 지식들이 전유되기도 하고 편견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비고츠키는 토론이라는 소통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수업의 대화 양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의미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바흐친(Bakhtin)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9) 최은경,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과론 실행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17~18.

40) 김상욱,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과론의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Vol.41 No, 2007, p.29.

41) 김상욱, 『문학교육의 길찾기』(서울: 나라말), 2003, pp.12~15, 최은경(2011), 앞의 논문, pp.18~19에서 재인용.



말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다. 둘째 상호 작용은 특정 담화 양식이나 담화 장르 내에서 일어난다. 이는 말이나 기호의 의미가 경험과 의식 모두에서 생겨났고 말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의 견해는 의미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담화 유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문학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고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제적 수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대화, 즉 문학 토론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 수업의 대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래들끼리 또는 교사와 학생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수업에서도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 “Probst는 의미는 위계화 된 구조 속에서 분배되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점에 비평가가 있고 그 다음으로 문학 연구자, 교사, 학생 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sup>43)</sup>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하위에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다양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교사나 권위자가 작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 적거나 외우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에 놓인 관점은 독자반응이론으로 모아진다. 독자반응이론은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빈 틈’으로 가득 한 텍스트 속을 떠다닌다고 말한다. 이 ‘빈 틈’을 독자, 즉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채워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의미를 구성하고 활동한다. 이미 존재하는 독자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인 것이다.”<sup>44)</sup>

“그 밖에 다른 연구자들도 의미 생산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저(Iser)

---

42) 최은경(2011). 앞의 논문. p.20.  
 43) 김상욱(2007). 앞의 논문. p.10.  
 44) 김상욱(2007). 앞의 논문. p.11.

는 읽기가 문학 작품의 구조와 그것의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문학적 의사소통은 텍스트와 독자의 쌍방적 관계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규정 간의 대상이 아니라 역동적인 진행과정을 의미한다.”<sup>45)</sup>

문학 작품을 통한 토론이야말로 문학 교육과 국어 교육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다름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미루어 비판적이고 고차적인 언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학토론은 문학 작품을 가지고 토론을 하며 작품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며,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그 안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에 부딪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하면서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문학토론의 다양성과 다의성

문학토론이 문학 작품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학토론의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 논설 텍스트는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며 근거를 찾아가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은 작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현실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낸 후 강조, 변형하여 그 의미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문학의 이런 상징성, 압축성, 구체성은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논설 텍스트보다는 해석과 분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

---

45)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2005, pp. 20~21, 최은경(2011), 앞의 논문, pp.21~22에서 재인용.

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을 사용하고자 했다.

둘째, 문학은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구성물이며, 개연성으로 연결된 흐름이다. 따라서 매우 복잡적이며, 다양하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가 지닌 삶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 등장인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토론은 각자 입장 속에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소통하고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다. 시사와 달리 문학이 지닌 복잡성과 개연성 안에 다양한 사람과 사건은 학생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셋째, 시사는 사실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대안과 전망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사실 전달’에 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 논리와 증거이고, 이를 근거한 토론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학토론은 조금 다르다. 문학은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현실 속에 풀어가는 것이고 독자가 읽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독자가 작품을 읽는 순간, 작가 개인의 이야기와 관계를 형성하고 작가의 특수성이 담긴 이야기는 간접경험을 통한 독자에 의해 보편성을 획득한다. 즉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과 공감하는 것은 다르지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특수성과 보편성의 갈등 속에 조화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 토론하는 것이 사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시사토론보다 인간의 보편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면서, 좀 더 구체적 현실인 것이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웃’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시대의 보편성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 토론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

넷째, 문학은 시대적 흐름이면서, 당대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토론은 당연히 의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상을 논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이 사상을 형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학토론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상을 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학 속 등장인물들이 왜

그 행위를 하였는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질문하고 토론하는 순간, 사상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 역시 당대 사상에 어우러지고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문학을 통한 토론은 다양한 삶의 태도와 세상을 해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문학은 재미와 더불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진실은? 세상은? 이란 질문을 던지며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시사에서는 다루지 못한 질문이다. 이렇듯 문학이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문학의 특징 때문이다. 그 특징은 개연성의 존재와 유기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사건을 토론의 소재로 하여도 그 속에는 삶은 무엇인가? 세상은? 이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답을 찾는 과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문학이 갖는 또 다른 특징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동은 사람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문학을 읽고 감동을 통해 토론활동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이라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문학이 얼마나 우수한 토론의 소재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만 가르치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동기, 문제를 풀어나가며 상대방과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상대방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선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할 시기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논쟁거리를 찾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 주장과 근거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자료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므로 비판적 사고 함양에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토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작품이나 다양한 자료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감정적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이고 타

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사고를 통하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듣고 바라보며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른 관점에 대해 유연성이 있으며 존중하는 태도인 다양성이 함양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문학을 통한 토론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되며 문학을 통한 토론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학 중에서도 동화를 제재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동화를 문학으로 봐야할지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문학의 갈래 특성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화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학 갈래 이론에 기대어 어린이 문학 즉 동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의는 합당해 보인다. 문학의 이론과 어린이 문학의 이론이 그대로 상응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문학 또한 문학이기에 그 본질과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어린이 문학의 본질 역시 자아와 세계 관계를 중심으로 탐구 될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근거로 동화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동화의 세 가지 특징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준다. “첫째, 동화가 간결하다는 점은 학생들의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작업 기억은 복잡한 사고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동화와 같이 짧은 글을 읽고 그 속에서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기능을 수행한다면, 작업 기억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화에 허구성이 들어간다는 점은 학생들이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연습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화에서는 의인화된 작품들이 많다. 이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허구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환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

46) 한명숙, 「박지은 동화의 문학적 성취 - 동화의 본질 탐색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9호, 2010, p.73.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함을 시사한다.”<sup>47)</sup>

셋째, 동화를 읽으면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장인물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음으로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지 생각하며 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동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동화가 왜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3) 문학토론의 유형과 특성

앞서 근거를 살펴보면 문학토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학토론이 어떠한 모형이 있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보고자 한다. 문학토론의 모형과 절차 역시 다양하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토론을 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모형은 “읽기 전략 바탕의 협동학습 형태와 경쟁을 위한 토론 학습 형태가 있다. 전자의 경우 작품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독서를 토론의 주제 선정에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sup>48)</sup>

#### (가) 읽기 전략 바탕의 협동학습 형태

“독서활동과 작품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며 읽는 전략의 형태로는 양서탐구토론, 이야기식 독서토론, 토의망식 독서토론, ECOLA(통합적 토론), 작은 대학 독서토론 등이 해당된다. 읽기 전략 바탕의 협동학습은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배경지식과의 연결, 집단 활동 운영, 다양한 의견 제시가 어렵다. 또한 토론에 대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의 동기 부여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47) 김정섭, 「우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가능성」, 『대한사고개발학회』, 2005, p.161.

48) 김보라(2017). 앞의 논문, p.15.

### (나) 경쟁을 위한 토론 학습 형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 주제를 선정 후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을 실시하는 경쟁을 위한 토론 학습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형을 보면 링컨-더글라스(Lincoln-Douglas)토론, 교차질의식 독서토론, 칼 포퍼(karl Popper)토론, 교보·숙명 독서 토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정을 위한 경쟁적 토론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을 많이 접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경쟁적 토론을 위한 작품 읽기로 오히려 폭 넓은 독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sup>49)</sup>

또 다른 모형으로는 김상욱<sup>50)</sup>의 논문을 보면 2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 (다) 문답식 수업(교사 중심 토론)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론 방식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IRE(교사의 질문 Initiation, 학생들의 반응 Response, 교사의 평가 Evaluation)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발표의 차례를 결정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이어 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린다. 이때 교사는 확산적인 질문을 통해 텍스트의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학생들의 반응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3> 교사의 예상 질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li> <li>-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li> <li>- 이 작품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일까요?</li> <li>- 작품을 읽고 난 후 느낌을 말해볼까요?</li> </ul> |
|--|

49) 김보라(2017). 앞의 논문. pp.16~17.

50) 김상욱(2007). 앞의 논문. pp.14~20.

- 다른 생각을 말해 볼 사람 있나요?
- 누가 보충해서 말해볼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이 심화될 수 있도록 교사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답식 수업의 토론은 교수·학습의 목표에 이르는 방법일 뿐이다. 무엇보다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나, 토론의 발언 순서, 토론의 정리 등 모든 활동들이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기 때문이다. 더욱 이러한 문답식 수업이 갖는 단점은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로 지극히 한정되고 있고 학생들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만든다.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생들의 반응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는 “정확한” 해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규칙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결국 토론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의 태도가 학교 교육의 읽기, 해석, 구성원 각자에 대한 태도를 미묘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다.

### (라) 토론식 수업(학습자 중심 토론)

토론식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모둠토론이나 패널토론 등의 방식을 들 수 있다. 교사는 토론을 관찰하는 역할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는 보조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토론식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문답식이든 토론식이든 다양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활동 후에 본격적인 토론, 그리고 전반적인 수업이 전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수업 대화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 (4) 문학토론의 형식과 절차

이와 같은 토론 수업 모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상욱<sup>51)</sup>의 토론 절차를 근거로 하였다.

<표-4> ‘김상욱’의 토론 절차

- ① 읽기 전 동기 유발
- ② 활동 과제의 설정
- ③ 초기 이해의 모색
- ④ 해석의 구체화
- ⑤ 비판적 관점의 활성화
- ⑥ 토론의 정리

먼저 ‘읽기 전 동기유발’은 문학 작품과 연관된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환기함으로써 문학 작품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여기에서 교사는 토론을 위한 예비적 질문을 이끌어 간다. 작품의 제목을 알려주고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 ‘활동 과제의 설정’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읽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나 의아한 부분을 점검한다. 그리고 ‘초기 이해의 모색’에서는 토론을 위한 작품의 줄거리나 배경, 사건, 인물의 성격 등을 검토한다.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지 질문하고,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점검한다. ‘해석의 구체화와 비판적 관점의 활성화’ 등은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조력자를 존재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해석과 평가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한다. 가능하다면 토론의 논제를 설정하는 것조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끝으로 교사는 남은 문제들, 더 생각할 과제들

51) 김상욱(2007). 앞의 논문. pp. 17~18.

을 던져주며 토론을 정리한다.

여러 토론 절차들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고 소통한다면 각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다양성을 존중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5> 실제 수업에 활용할 토론 방식

- ① 작품 읽기 및 논제제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학습지를 배부하고 작품을 읽고 토론의 논제를 제시한다.
- ② 근거 찾기: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작품이나 그 외의 자료에서 근거를 적고 정리.
- ③ 토론하기: 각 입장이 교차하여 순차적으로 토론 진행.
- ④ 토론정리: 교사가 토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정리.
- ⑤ 역할 바꿔 토론하기: 앞선 토론의 입장과 반대로 바꾸어서 토론을 진행.
- ⑥ 근거 찾기: 앞서 진행했던 토론에서 나왔던 근거 외에 다른 새로운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적기.
- ⑦ 토론정리: 교사가 토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정리.
- ⑧ 글쓰기: 두 입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각 글쓰기
- ⑨ 점검하기: 토론을 마친 후 스스로 점검해보기.

논제 제시 및 작품 읽기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논제로 토론을 할 것이고 그 논제를 보고 작품을 읽어나가는 것이다. 근거 찾기는 학생들이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읽고 자신이 정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미리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정리는 토론이 끝난 후 교사가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 바꿔 토론하기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토론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주장

이고 상대방이 B라는 주장이면 역할을 바꿔 내가 B, 상대방이 A를 해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서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거를 미리 찾고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쓰기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글쓰기 시간에는 토론 이후 자신을 생각을 정리하고 입장을 바꿔 토론하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통합된 생각은 없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점검하기는 토론에 임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정확한 정보로 찾아보았는지,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며 들었는지 등에 대한 것을 점검해보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광주의 ○○중학교 독서동아리 3학년 학생들이다. 한 교실에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였고, 1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장소는 3학년 6반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 9~11월 3달 동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3차시 3번, 9시간을 수업한 것이다. 이 역시 학교에 허락을 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시수와 학생 수가 부족한 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2. 연구절차

토론에서 사용할 문학 작품으로 <개미와 베짖이>, <토끼와 거북이>, <흑설공주와 백설공주> 3작품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작품과 관련된 주제로는 먼저 <개미와 베짖이>는 ‘개미와 베짖이 중 누구의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 <토끼와 거북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쟁이란 꼭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흑설공주와 백설공주>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경쟁력인가.’로 정했다.

<표-6 토론 방식에 따른 수업 절차>

토론의 방식	개미와 베짖이
① 논제 제시 및 작품 읽기	‘개미와 베짖이 중 누구의 삶이 바람직한가.’ 논제를 제시하고 작품 읽기
② 근거 찾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주장에 따른 근거 찾기

③ 토론하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를 들어가며 ‘개미의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 ‘베짱이의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 ‘개미의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순차적으로 토론하기
④ 토론정리	토론이 끝난 후, 교사가 전반적인 토론 정리해주기
⑤ 역할 바꿔 토론하기	‘개미’를 지지하던 학생이 ‘베짱이’를 ‘베짱이’를 지지하던 학생은 ‘개미’를 지지하며 역할을 바꿔 토론해보기
⑥ 근거 찾기	앞서 나왔던 근거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근거는 없나 찾아보기
⑦ 토론 정리	역할 바꿔 토론을 마친 후, 교사가 전반적인 토론 상황을 정리하기
⑧ 글쓰기	개미, 베짱이의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글쓰기
⑨ 점검하기	글쓰기까지 다 마친 후,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태도는 어땠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기

첫 번째 수업은 9월 16일에 진행했다. 제재는 <개미와 베짱이>를 가지고 주제는 ‘개미와 베짱이 중 누구의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였다.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 앞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왜 수업을 진행하는 지 학생들에게 먼저 공지를 했다. 그리고 <개미와 베짱이> 작품을 읽고 주제를 설명하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묻고 입장을 정한 후 자리를 다시 배치했다. 그리고 난 후, 주어진 자료에서 근거를 찾고 토론을 개미 → 베짱이 → 개미 교차하며 토론을 했다. 그 후 다시 역할 바꾸기 토론으로 개미를 지지하던 학생은 베짱이를 지지해보고, 베짱이를 지지하던 학생은 개미를 지지해보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

료에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고 토론을 했다. 이러한 토론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토론이 다 끝난 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처음 주장했던 입장이 아니라 역할을 바꿔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으로써 하나의 생각이 아닌 좀 더 나아간 생각을 하게 하려고 글쓰기 활동을 해보았다. 그리고 글쓰기까지 다 끝난 후,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근거를 들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다음 수업 차시 예고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수업은 10월 24일에 진행되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업형태로 진행하였다. 작품을 읽고, 토론하기, 역할 바꾸어 토론하기, 글쓰기, 점검하기로 진행되었다. 제제는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세 번째 수업 역시 같은 수업구조로 진행되었다. 제제는 <흑설공주와 백설공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경쟁력인가.’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주제와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입장 모두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지니고 있는 동화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는 소재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두의 결론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더 나아가 확실한 갈등구조와 개연성 등은 살리지만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으로 흘러 토론이 단순화되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동화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동화는 각 인물이 다양하면서도 정확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즉 동화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동화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교훈을 깨달으며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다.<sup>52)</sup> 또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

52) 최효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을 고려했다,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토론 활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문학 작품 중 동화를 선택하였다. 즉 수업방식에서 고려한 서로의 입장을 포용하고 통합하여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입장을 고민하게 하려는 의도로 구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재는 문학작품 중 동화이고 방식은 토론을 택했다.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고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알아가고 역할을 바꿔보면서 타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까지 학생들이 느끼도록 구성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된 생각이나 해결방안 등은 없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글쓰기 활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수업분석 및 논의

각 차시의 토론활동 수업을 비판적 사고에서 필요한 5가지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건전한 회의성: 성찰, 변화 모색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개미와 베짖이 중 누구의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였다. 개미로 대표되는 삶의 태도는 미래를 위해 놓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베짖이는 순간의 삶에 충실하며 지금의 행복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들로 삶이 지닌 의미를 돌아보게 하였다.

먼저 건전한 회의성이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진실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건전한 회의성은 진실을 알아가려는 태도, 자신의 사고과정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 태도, 즉 성찰하는 태도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회의성과 관련된 발언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글쓰기에서는 두 명의 학생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베짖이의 삶을 원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보니 지금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살아야 하는 삶은 개미인 것 같다. (1차시 글쓰기 A학생)

처음에는 베짖이의 삶을 원했지만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베짖이보다 개미가 더 알맞은 삶이라고 생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행복도 중요한 것 같다. 지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1차시 글쓰기 B학생)

처음에는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을 지향했지만 토론을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찰하는 글을 적었다.

이처럼 토론의 발언에서는 건전한 회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주제의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주제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승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하나.’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벼지이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른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내 생각에 오류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글쓰기에서는 2명이 건전한 회의성이 보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글쓰기 특징에 있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면서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들과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며 한 번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회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수업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은 꼭 필요한가.’라는 것이었다. 토끼와 거북이는 경쟁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경쟁을 하는 모습과 거북이와 토끼의 무한한 경쟁 속에 결국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오로지 1등만이 존재하는 현실의 경쟁과 올바른 경쟁이라는 가치적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발언 속에는 건전한 회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주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업에서도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물론 주제 자체도 역시 경쟁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로 나뉘 경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토론이라는 방식이다. 토론은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토론을 하는 중 건전한 회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글쓰기는 달랐다. 토론을 마친 후, 토론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경쟁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스에서 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적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경쟁은 필요한 것 같다. 과연 내가 시험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한 번 친구와의 경쟁으로 인해 성적이 올랐던 적이 있다. (2차시 글쓰기 C학생)

처음에는 경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 자신도 친구와의 경쟁으로 인해 성적이 올랐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과연 내가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했을까.’라는 성찰적인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모두 토론의 발언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글쓰기에서는 몇몇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을 쓰면서 학생들은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전체적인 수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무슨 말이 오갔는지 생각하며 자신

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수업은 <백설공주와 흑설공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경쟁력인가.’였다.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동화에서는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흑설공주는 주위에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책을 통해 내면을 가꾸가고 마지막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며 아름다움은 각자마자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외모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외모가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세 번째 수업에서도 건전한 회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토론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상대방 주장과 근거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일인데 그 순간 내 생각은 틀렸다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성향을 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수업을 통해 토론 수업에서는 건전한 회의성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토론활동과 더불어 글쓰기 활동을 같이 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글쓰기 활동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성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살면서 외모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 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생각하면서 외모라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잘 알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고 토론을 통해 한 발짝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처음에 나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남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외모이고 첫인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얼굴, 옷차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얼굴만 예쁘고 지식, 내적인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무식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차시 글쓰기 B학생)

나는 외모라는 뜻과 정의, 기준 범위 등을 잘 알지 못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토

론을 하면서 정의나 기준, 범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3차시 글쓰기 D학생)

한편으로 외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은연중에 외모로 남을 판단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외모를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서 하여 나도 토론을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다. 1학기에 반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날, 나도 모르게 얼굴을 보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친구, 못할 거 같은 친구, 놀 것 같은 친구 이렇게 나누기도 했던 것 같다. (3차시 글쓰기 E학생)

첫 번째 수업부터 세 번째 수업까지 건전한 회의성을 두드러지게 찾아볼 순 없었지만 글쓰기 활동을 통해 첫 번째 수업보다는 세 번째 수업에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토론을 진행 후 글쓰기 활동을 하면 토론을 하며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깊이 있게 알아 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토론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토론 후 글쓰기 활동은 자신을 성찰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2. 다양성: 유연성, 다각도 시선

다양성이란 타인의 의견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그런 다양한 시각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스스로는 편견이 없는 지 생각해보며,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근거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다면 반박을 하되,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학생들

이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발언하는 지에 대해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첫 번째 토론하기에서는 학생들이 토론활동이 어색함을 느꼈는지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였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반응들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만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개미가 자신의 일에 확고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토론하기 F학생)

베짱이처럼 미래의 불안감을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과연 더 좋을까요? 저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안감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 토론하기 J학생)

두 번째 역할 바꿔 토론하기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선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이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C학생)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1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H학생)

베짱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의 위치라면 그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I학생)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많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 수업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그리하여 토론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메모지를 나눠주었고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게 했다. 하지만 그 역시 힘들었는지 몇몇 학생들은 제대로 적지 못한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었고, 상대방 의견을 유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첫 수업 때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토론이라는 활동에 적응을 해가며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경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무조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차시 토론하기 E학생)

서로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 자신이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차시 토론하기 F학생)

성적비관으로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에는 경쟁이 있다는 것에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2차시 토론하기 H학생)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에 경쟁이 있다고 했는데 배경이 잘못된 것이지 경쟁의 필요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시 토론하기 J학생)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적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할 바꾸어 토론하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이기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자기가 발전하다보면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A학생)

지금 현재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고 선의의 경쟁자체가 비현실적이란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E학생)

서로가 노력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경쟁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더욱 큰 분노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H학생)

‘나만 옳아.’ 라는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하며 공감도 해가며 학생들이 점차 토론에 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3시간 연달아 하는 수업이다 보니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 학생은 여전히 토론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수업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수업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토론 활동에 완전히 적응했고 활발하게 상대방 의견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 근거에 동의합니다. 외모도 첫인상으로 스펙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스펙이 되어버린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시 토론하기 A학생)

외모도 스펙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외모보다는 학력의 중요성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차시 토론하기 B학생)

외모를 가꾸려다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차시 토론하기 J학생)

외모라는 존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3차시 토론하기 K학생)

그 전 토론보다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역할 바꿔 토론하기에서도 학생들이 상대방 의견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을 가꾸는 일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도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가꾸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D학생)

사람을 볼 때 외모가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외모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장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E학생)

외모를 가꾸는 것도 능력이고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럼 선천적으로 마르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은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예쁩니다. 그래서 외모만으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H학생)

외모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비꼬기 위한 드라마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J학생)

마지막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나니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상대방 근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하는 힘을 기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 3. 객관성: 신뢰, 타당성

객관성이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제 삼자가 바라봤을 때도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토론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주어진 작품에서 찾아보거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는지에 주목하여 보았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역시 토론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작품 안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베짖이는 베짖이 나름대로 행복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 토론하기 C학생)

이야기를 보면 베짖이가 공연장 주인장한테 캐스팅 되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짖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토론하기 D학생)

두 번째 역할 바꿔 토론하기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토론에서는 다양한 자료나 자신의 경험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글에서 보면 개미는 자신이 거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원하는 욕망을 억누를 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한 삶을 위해 현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B학생)

여기 동화를 보면 베짖이는 다른 일을 해보지 않고 노래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미래에도 노래를 하고 잘 살고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H학생)

또한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몇몇 학생들은 근거부터 찾기를 어려워했고 잘 따라오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동화를 선택해서 토론을 진행했지만, 동화 역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나 자신의 경험 등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나 자료를 더 나눠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수업보다는 다양하게 근거를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경기에 너무 이기고 싶었던 거북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르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이기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거북이와 같은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시 토론하기 A학생)

<토끼와 거북이 2>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계속 경쟁을 하다가 점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은 꼭 너무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시 토론하기 B학생)

여기 사례에서처럼 박군은 공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친구와 같은 경쟁

을 계속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2차시 토론하기 E학생)

<토끼와 거북이 I>에서 거북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과도한 경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시 토론하기 J학생)

두 번째 역할 바꿔 토론하기에서도 작품뿐만 아니라 기사 등을 활용하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끼와 거북이 2>에서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A학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난 이유 역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B학생)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그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성적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만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F학생)

<토끼와 거북이2>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경쟁을 계속 하다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점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함께 도우며 동력이 되고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2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J학생)

이렇듯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점차 토론 활동에 적응을 하고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찾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작품이나 경험,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찾는 것을 보았고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 중이었는데, 직원분이 와서 ‘고객님에게 맞는 사이즈는 없는 것 같다.’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각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자신이 한 말이 폭력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차시 토론하기 A학생)

과도한 성형,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문제점들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3차시 토론하기 D학생)

잡○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면접 시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91%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차시 토론하기 F학생)

한 자료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차시 토론하기 H학생)

어떤 한 기사에서 외모가 좀 더 나은 사람이 2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17%, 여자는 12%가 더 높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외모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차시 토론하기 J학생)

자신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다. 역할 바꾸어 토론하기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에 앉으면 바로 앞 의자에 성형외과 광고가 있고 취업성형, 수능이 끝난 뒤 할인 성형 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E학생)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에서 자주 보았었을 것입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F학생)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외모가 잘나지 않아도 실력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지 않아도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G학생)

학교에서 못생긴 친구들을 보면 간혹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외모가 좀 더 나으면 친구들을 쉽게 사귄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3차시 역할 바꿔 토론하기 J학생)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나 TV 속 프로그램, 뉴스 기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은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토론하기에서 나왔던 근거들 외에 다른 근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다보니 근거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자료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꼭 필요하며, 그 근거 역시 타당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나 기사,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4. 상위인지성: 점검, 보완

상위인지성이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오류를 자신이 스스로 거울처럼 드러다 보고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행동이나 주장을 강화했던 근거는 타당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하는 행동이 토론활동 중에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토론을 마친 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아래 <표-7>을 보면 체크리스트 문항과 첫 번째 수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7> 상위인지성 체크리스트 문항과 첫 번째 수업 결과

문항	점수
1.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증거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확인해보았다.	37
2.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주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점검했는지 확인해보았다.	39
3.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모두 잘 생각해보았는지 점검해보았다.	37
4.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점검해보았다.	33
5.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보았다.	32
6.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가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34

7.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복잡한 일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30
8.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생각해보았다.	35
9.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34
10.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40

\*50점 만점

첫 번째 수업에서는 항목 중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이 스스로 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토론의 주제와 주어진 작품이 어렵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 활동이란 자체는 어려워했지만, 주제나 작품은 학생들이 접했던 동화였고, 동화 속 주인공이 지닌 삶의 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목 중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잘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자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토론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근거를 찾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인데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토론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지, 타당한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토론 수업을 반복해서 진행하다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온 항목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행동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잘했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수업의 상위인지성 결과는 아래 <표-8>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상위인지성 두 번째 수업 결과

문항	점수
1.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증거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확인해보았다.	34
2.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주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점검했는지 확인해보았다.	33
3.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모두 잘 생각해보았는지 점검해보았다.	34
4.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점검해보았다.	33
5.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보았다.	35
6.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가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33
7.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복잡한 일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30
8.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30



영향을 줄지 미리 생각해보았다.	
9.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33
10.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36

\*두 번째 수업 때는 참여인원 총 아홉 명이었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역할, 즉 입장을 바꾸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을 좀 더 높이고 그림으로써 배려하고 공감하는 성향이 생길 것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복잡한 일을 잘게 나누어 체계적으로 생각했다.’였다.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말하기는 하나 앞뒤 두서없이 말하는 학생들이 보였다.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반하는 근거를 드는 학생들이 몇몇 보였다. 이런 모습을 통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첫 수업 때보다 모든 항목들의 점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차시 수업의 결과는 아래 <표-9>과 같다.

<표-9> 상위인지성 세 번째 수업 결과

문항	점수
1.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증거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확인해보았다.	45

2.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주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점검했는지 확인해보았다.	43
3.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모두 잘 생각해보았는지 점검해보았다.	40
4.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점검해보았다.	40
5.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보았다.	44
6.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가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42
7.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복잡한 일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39
8.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생각해보았다.	39
9.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40
10. 나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44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증거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확인해보았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찾는 것이 어색했지만 3번의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적응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갈수록 자신의 주장에 작품이나 주어진 자료 등에서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역시 토론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일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기에는 힘들었지 않았나 싶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들이 첫 번째 토론보다는 모두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나아진 항목은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역할 바꿔 토론하기라는 활동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입장을 바꿔 상대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체크 리스트라는 것을 감안하여 학생들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5. 통합성: 새로운 관점, 확장된 시야

통합성이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구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과 태도 등을 관계 짓고 통합하여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내가 주장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각을 관계 지어보고 그 안에서 통합하여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합성은 아이들이 토론 중이 아닌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에서 주되게 보려고 했다. 토론하기, 역할 바꾸어 토론하기를 마친 후, 전체적인 토론을

정리하며 좀 더 나은 생각이나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연결 짓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여전히 재미 삶의 태도를 지지하는 학생도 있었고, 베짖이 삶의 태도를 지지하는 학생도 있었고 <재미와 베짖이>를 연결 지어 새로운 생각을 해 본 학생들도 있었다.

베짖이처럼 살기 위해선 타고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참고 안정된 직업을 하면 평생 안정하게 살 수 있다.

(1차시 글쓰기 A학생)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살아야하는 삶은 재미인 것 같다. 미래를 위해 재미처럼 목표를 정하고 꼭 참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차시 글쓰기 B학생)

지금의 쾌락만을 즐기다간 나중에 더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덜 힘들 것이다. 지금 하기 싫은 걸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1차시 글쓰기 D학생)

나는 현실을 회생하지 않는 선에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차시 글쓰기 I학생)

위 학생들은 자신이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이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다음은 베짖이처럼 살아가고 싶단 학생들의 글이다.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매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사실 학교를 다니는 순간에는 이런 말이 실현불가능이라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최대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1차시 글쓰기 E학생)

베짖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키워서 성공한다면 너무 뿌듯할 것이다. 베짖이같이 지금의 인생을 자신의 재능을 키우며 즐겁게 살고 싶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대한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하고 시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나중에 후회할 바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1차시 글쓰기 G학생)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후회할 수도 있고, 성공하리란 확신은 없지만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산다면 커서도 후회를 크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사는 인생을 행복하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다. (1차시 글쓰기 H학생)

왜 베짖이처럼 살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니 E학생 같은 경우 뷰티를 배우며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개미, 베짖이가 아니라 두 인물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그런 삶처럼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글이다.

저는 개미 같으면서도 베짖이같이 살고 싶습니다. 베짖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해서 개미 같은 베짖이로 살고 싶습니다. (1차시 글쓰기 C학생)

개미 같은 미래에 불안감이 없는 것도 좋지만, 베짖이 같은 미래에 불안감은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개미와 원하는 방향을 가려고 미래가 보장

되진 않지만 열심히 실천하는 베짖이도 둘 다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1차시 글쓰기 F학생)

베짖이의 삶과 개미의 삶 모두 혼합해서 살아간다. 개미는 늘 꾸준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베짖이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개미처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시 글쓰기 J학생)

때로는 개미처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베짖이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휴식을 취할 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1차시 글쓰기 K학생)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찾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또한 예술을 하는 학생은 단순히 좋아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치열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개미와 베짖이> 삶을 적절히 섞어 살아가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주위 학생들에게 물어보며 써나가는 학생들이 있었고 1~2줄로 끝내버린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토론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현재와 앞으로 삶에서 경쟁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아니면 더 나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했다. 먼저 경쟁이 필요하다고 한 학생의 글이다.

경쟁은 필요하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은 우리 생활에 활력을 생기게 해줄 수도 있다. (2차시 글쓰기 I학생)

경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의 원동력이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발언을 했고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다음은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글이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게 되면 압박감과 부담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자기가 발전하다보면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이유들이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2차시 글쓰기 A학생)

경쟁을 꼭 해야만 하는 사회로 바뀐 것 같다. 좋은 점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 같다. 대학을 간다고 해서도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끝없는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2차시 글쓰기 G학생)

현대에서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함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아니어도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시 글쓰기 H학생)

경쟁이 가져오는 압박감,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성적 비리 등을 꼬집으며 경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생각을 해본 학생들의 글이다. 이 학생들은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적었다.

경쟁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학교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경쟁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을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쟁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졌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3차시 글쓰기 B학생)

경쟁은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도한 경제사회가 우리나라 교육사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과도한 경쟁이 아닌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도 무조건 성적으로 대학을 나누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차시 글쓰기 E학생)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쟁은 적당한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은 너무 과도해도, 너무 허술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은 심리적 불안감과 자칫 잘못하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경쟁이 만약 없다면, 자신의 성장이 미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두 부분을 고려해 적당한 경계선을 유지한다면, 남에게 상처받을 일도 남에게 상처 줄 일도 없을 것이다. (2차시 글쓰기 F학생)

경쟁은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서실을 가면 다인실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동력을 얻고 내가 꼭 마지막에 나가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며 성장한다. 경쟁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좋게 한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



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니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실패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2차시 글쓰기 J학생)

위 학생들은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성공만을 바라기보다 실패에 관대하며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사회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 찾은 학생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의 양도 달라졌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말하며 대안을 찾기도 하는 글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수업은 외모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글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한다. 외모가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 누구나 더 잘생기거나 예쁘면 호감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것은 중요하다. (3차시 글쓰기 G학생)

외모는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 외모가 좋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차시 글쓰기 H학생)

사람들이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구이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 더 가며, 외모가 우수하면 그 사람도 우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호감을 갖기 때문에 외모는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외모가 경쟁력이 아니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글이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 대한민국에 가뜩이나 널리 퍼져 있는 외모지상주의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 세상은 결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능력, 스펙으로 보는 것은 바뀌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시 글쓰기 D학생)

외모는 경쟁력이 아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아 자신이 행복함을 느껴서 즐겁게 일을 한다면 외모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3차시 글쓰기 K학생)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성형수술 중 사망에 이르는 뉴스 등을 꼬집으며 이 사회의 제도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적었다. 또한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굳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 새로운 생각들을 적은 학생들이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외모로 판단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편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 사람들의 특성이나 개성을 찾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차시 글쓰기 A학생)

외모가 우리 인생을 좌우 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무리 외모가 예쁘더라도 지식이 별로 없으면 우리는 무식하다고 평가하곤 한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실력을 쌓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미의 기준이 획일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의 기준을 깨려고 탈코르셋 운동 등을 벌이고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이다. (3차시 글쓰기 B학생)

자신을 가꾸는 일을 절대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게 많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사회도 그런 평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다 매력 있는데 가끔씩 친구들이 자신을 안 좋게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 슬퍼서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니 남들의 시선에 당당했으면 좋겠고 남들도 역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차시 글쓰기 E학생)

현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테스트, 혹은 증명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기사도 봤던 것 같다. 치료 목적인 수술은 찬성하지만, 과도하게 미를 추구해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저도 한 때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했었다. 이 토론을 통해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도 외모지상주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3차시 글쓰기 F학생)

외모는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외모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외모를 가꾸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3차시 글쓰기 I학생)

외모는 당연히 자신의 개성 있는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외모로 인한 불공평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획일화된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또한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정말 내가 가꿔야 할 나를 가꾸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 사회가 말하는 잘못된 기준에 나를 맞추다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신을 가꾸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장미는 장미대로,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아름답듯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아름답다고 할 때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될 것 같다.

(3차시 글쓰기 J학생)

이러한 글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획일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비판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일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점은 고쳐야할 것 같다고 적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자기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개성을 잃어가는 등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면서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답을 하고 있기에 희망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통합성 역시 처음에는 학생들이 일단 글을 쓰는 활동부터 어려워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글의 양도 늘어나고 다양한 생각과 확장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쪽 아니면 저쪽만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쪽, 저쪽뿐만 아니라 그쪽 등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한 점들이 보인다. 또한 예전에는 ‘이쪽을 주장합니다.’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대안까지 작성한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첫 수업 때는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활동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어색함을 느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 활동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점차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줄도 알고 작품 이외에 자료들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봤고 경험했던 일들도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에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며 토론에 임하기 어려워했으나 역시 이 부분도 많이 나아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왜 그 학생이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고 참여하

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 근거에 대해 동의와 반박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말하라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했다.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토론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상대방 근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보면 학생들이 근거를 찾거나,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며 말하거나 등 이러한 항목들의 점수들이 모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역시 처음에는 글을 쓰는 활동조차 어려워하더니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과 근거 이외에 대안까지 적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편견, 고정관념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다양한 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스스로가 내리는 판단에 일정한 오류가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옳은 것이겠지만 타인이 바라봤을 때, 옳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단편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다.

또한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생각, 입장 등이 형성된다면 큰 오류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정보선택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큰 오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정보들 중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토론을 통해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부딪치며 성장하고, 사고의 확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 끊임없는 부딪침 속에서 확고했던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면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생겨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찾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분명 확실한 논리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인정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장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타인의 장점을 수용하여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통합해보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 교사는 토론 구성원 중 70% 정도 학생은 평소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수업을 따라 오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많아, 처음 토론 수업이 시작될 때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작품을 읽고 찬반을 선택한 후 근거를 찾아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3번의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에 흥미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즐기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냥, 그래요!’가 아닌, ‘이런 이유와 이런 근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데까지 성장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물론 논제 자체가 본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어서 어렵지 않게 근거를 찾아 말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토론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던 학생들이 작품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만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도 들으면서 글쓰기에서도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수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 V. 제언 및 결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중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또한 그 정보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재편집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학 교육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 요구에 맞게 문학 교육은 문학 텍스트를 읽으며 타인과 소통을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오류(단편적인 생각)를 고쳐가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나아가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적절히 통합해 봄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토론을 통해 올바른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비판적 사고란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II장에서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지 살펴본 후, 비판적 사고 요소를 ‘건전한 회의성’, ‘다양성’, ‘객관성’, ‘상위인지성’, ‘통합성’ 5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건전한 회의성이다.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살펴보면 반성, 회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듀이는 비판적 사고의 다른 이름으로 반성적 사고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에니스 역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 이면서 반성적인 사고”라고 수정하였다. 맥케이 정의내린 비판적 사고에도 반성적

회의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비판적 사고에는 반성과 회의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건전한 회의성이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 또는 신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 사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의하게 된다. 그러면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다양성이다. 개인적인 편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주어진 정보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고, 시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객관성이다. 진실을 찾고자 최선의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거나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것들이 정확하고 합당하며 타당한지 확인해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요소는 사고의 상위인지성이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것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어떤 주장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았는지, 쟁점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등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통합성이다. 비판적 사고에서 통합성을 중요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들을 연결하면 발전된 생각에 가까워질 수 있고,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학토론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문학토론의 방법을 정리했다. ‘텍스트 읽



기 및 논제제시’, ‘입장 정하기’, ‘찬/반토론 구성하기’, ‘찬반토론’, ‘토론정리’, ‘역할 바꿔 토론하기’, ‘글쓰기’, ‘점검하기’로 구성했다.

이에 III장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시간 씩 총 세 차례 토론의 방법에 따라 수업의 절차를 설명했다. 작품은 <개미와 베짚이>, <토끼와 거북이>, <백설공주와 흑설공주>이다. 주제는 각 작품에 따라 ‘개미와 베짚이 중 누구의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쟁이란 꼭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경쟁력인가.’로 정했다.

그리고 제IV장에서는 이러한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비판적 사고 구성 요소에 따라 전체적인 수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비판적 사고 구성요소들이 모든 연구 집단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전한 회의성 같은 경우 토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글쓰기 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 토론은 나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찰이나 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글쓰기는 토론이 끝난 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기에 건전한 회의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토론과 글쓰기는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면으로는 수업을 하기 전 토론 사전 교육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토론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방법 등을 미리 교육했다면 건전한 회의성이 발언 중에 찾아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처음에는 토론의 행위 자체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마지막 실험 때 토론 활동에 쉽게 적응하는 모습이였다. 또한 문학 텍스트 읽고 토론을 통하여 생각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올바른 지식을 구할 수 있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어교육의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많은 구성요소들이 통합되어 다양하면서도 유의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국어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각의 영역들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영역들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설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는 문학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작용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성취수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근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국어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절차나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국어 교육이 작품에 집중하기 보단 학생들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국어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육적인 모습인 것이다. 현재 비판적 사고 교육은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고정미, 「토의망식 토론을 활용한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 방안」,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기한 외,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연구보고 10-R17, 2010.

김명숙 외,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9 No 1, 2006.

김명숙 외 4,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II) -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제작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김보라, 「문학토론 수업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상욱,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토론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학』 Vol.41 No, 2007.

김상욱,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 -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0호, 2011.

김정섭, 「우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 가능성」, 『대한사고개발학회』, 2005.

김정희,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노경주, 「비판적 사고: 패러다임과 개념」, 『사회과 교육』 제41권 1호, 2002.

배상식, 「H. Siegel의 비판적 사고 개념」, 『새한철학회』 제63집 제1권, 2001.

서인화, 「토론 수업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성일제 외,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신경림,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1996.

이인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4호, 2013.

이재승,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희숙, 「쓰기계획에서의 상위인지전략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재림, 「문학 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 - 박완서 소설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5집, 2014.

조아미 외,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및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고력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최유미, 「동화를 활용한 토론화동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최은경,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토론 실행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효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최훈, 「비판적 사고 성형: 그 의미와 수업 방법」, 『철학탐구』 제24집, 2008.

한명숙, 「박지은 동화의 문학적 성취 - 동화의 본질 탐색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9호, 2010.

한영광, 「독서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한지혜, 「동화를 활용한 토론 활동이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허경철 외,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부록

1. 교수/학습 지도안.....	83
2. 활동지.....	90

## 1. 교수·학습 지도안

### ●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일시	2018. 09. 16		지도 대상	독서활동 동아리	장소	3-6반 교실
제재	개미와 베짚이		차시	1/3	수업 모형	학습자 중심
지도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지도시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5분)	인사	▶ 인사 및 출석 확인 후 수업 분위기 조성	▶ 인사하고 출석 확인 후 학습 준비			
	수업 흐름도 제시	▶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설명	▶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확인			
	학습 동기 유발	▶ 학생들이 읽었던 '개미와 베짚이'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묻기	▶ 학생들은 '개미와 베짚이'를 읽었던 내용을 생각하여 말한다.			
	작품 읽기	▶ 그 전에 읽었던 내용과 다른 '개미와 베짚이'를 설명	▶ '개미와 베짚이'를 읽기		제재	
	토론 절차	▶ 토론의 주제와 절차를 간략히 설명	▶ 토론의 주제와 절차를 확인			

	설명	(주제: 개미와 베짖이 중 누구의 삶의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			
전개 (35분)	각자 입장 정하기	▶ ‘개미와 베짖이’ 입장을 물어보기 (입장을 정한 후 자리 배치)	▶ ‘개미와 베짖이’ 중 원하는 입장에 손을 든 다. (입장을 정한 후 자리 배치)		
	토론하기	▶ 학습목표 설명 (① 주장에 대해 타당 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 에 임할 수 있다. ② 다른 친구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들으 며 토론에 임할 수 있 다.) ▶ 주제를 다시 확인시 킨 후,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고 적어 보게 한다.  ▶ 근거를 적었는지 확 인 후, 토론을 시작시 킨다.	▶ 학습 목표 확인  ▶ 주제 확인 후, 자신 이 선택한 입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서 학습지에 적어본다.  ▶ 근거를 적은 후, 토 론에 임한다.	학습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정리 (5분)	역할 바꾸기 토론 설명	▶ 다음 시간에 할 역할 바꾸기 토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다음 시간에 할 역할 바꾸기 토론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차시예고	▶ 다음 차시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 (토론 진행)	▶ 다음 차시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 후 다음 차시 내용

일시	2018. 09. 16		지도 대상	독서활동 동아리	장소	3-6반 교실
제재	개미와 베짚이		차시	2/3	수업 모형	학습자 중심
지도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지도시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 수업분위기 조성	▶ 토론 준비			
	학습 동기 유발	▶ 앞선 토론 후, 느낀 점을 간략히 말해본다.	▶ 토론 후,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해본다.			
	역할 바꾸기 토론 설명	▶ 역할 바꾸기 토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역할 바꾸기 토론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전개 (30분)	역할 바꾸기 토론 진행	▶ ‘개미’의 입장이었던 학생들은 ‘베짚이’입장, ‘베짚이’ 입장이었던 학 생들은 ‘개미’입장으로 바꾸어본다.  ▶ 입장을 바꾸어서 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 ‘개미’의 입장이었던 학생들은 ‘베짚이’입장, ‘베짚이’ 입장이었던 학 생들은 ‘개미’입장으로 바꾸어본다.  ▶ 입장을 바꾸어서 각 입장을 지지하기 위	학습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학생들의 감정이	

		근거를 생각하고 적어본다. ▶ 토론을 진행한다.	한 근거를 생각하고 적어본다. ▶ 토론에 임한다.		격해지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
정리 (5분)	토론 마무리	▶ 토론 후, 발언들을 정리하며 마무리시킨다.	▶ 토론을 마무리한다.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간단히 확인	▶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간단히 확인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 후 다음 차시 내용

일시	2018. 09. 16		지도 대상	독서활동 동아리	장소	3-6반 교실
제재	개미와 베짚이		차시	3/3	수업 모형	학습자 중심
지도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지도시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 수업 분위기 조성	▶ 학습 준비			
	전시 학습	▶ 역할 바꾸기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 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	▶ 역할 바꾸기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 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			
	학습 동기 유발	▶ 역할 바꾸기 토론 후, 느낀 점을 간략히 말해본다.	▶ 역할 바꾸기 토론 후, 느낀 점을 간략히 말해본다.			
	수업 흐름도 제시	▶ ‘개미와 베짚이’를 읽고 토론 후, 글쓰기 를 진행할 것을 알린 다.	▶ ‘개미와 베짚이’를 읽고 토론 후, 글쓰기 를 진행할 것을 확인한 다.			
전개 (25분)	글쓰기	▶ 앞선 시간에 진행했 던 토론 중 어떤 내용 이 오고갔는지 생각해 본다.	▶ 앞선 시간에 진행 했던 토론 중 어떤 내 용이 오고갔는지 생각 한다.	학습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p>▶ 토론 후,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적어보도록 한다.</p> <p>▶ 글쓰기 활동 후, 나눠준 체크리스트 나눠주기</p>	<p>▶ 토론 후,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학습지에 적어본다.</p> <p>▶ 글쓰기 활동 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도록 한다.</p>		
정리 (10분)	수업 마무리	▶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왔으며, 수업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본다.	▶ 수업을 마친 후,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했는지 말해본다.		
	차시예고	▶ 다음에는 어떤 제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예고	▶ 다음 제재를 확인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 후 다음 차시 내용
	인사	▶ 수업 정리 후 인사	▶ 수업 정리 후 인사		

※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도 같은 형식으로 수업 진행

## 2. 활동지

### 활동지

성별:

이름:

1. 나는 개미와 베짖이 중 ( )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왜 ( )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보세  
요.

①
②

## 활동지

성별:

이름:

1. 나는 역할을 바꾸어 ( )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왜 ( )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보세  
요.

①
②





## ABSTRACT

###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hrough the Discussions about Literature

Kim Su-yeon

Advisor : Prof. Kim Hae-young

Major in Korea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hrough literature discussion, as I consider that literary discussion activities can foster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ies. For this purpose, I will examine the definition and the components of critical thinking and apply them to the actual education field to establish the method of a desirabl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diverse thinking skills through talking about literary works with students. Critical thinking capability is the most essential in modern society where various conflicts and issues stand against one another. Literary discussion can be a mediator to enhance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that it stimulates various thinking skills through students' contemplating literary works and the dialogues with other students about them,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view their thoughts objectively.

In particular, since many literary works consist of narrative forms that show human lif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oughts and behaviors of the characters that are in a specific situation, they are good materials for anyone to talk about how to act and think in their cases. An activity of reading literary works and developing debate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raw students' thoughts out easily because it leads students to think about the universal problems that they can encounter in everyday life.

Chapter I discusses the need for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reviews previous studies. While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critical thinking discussed in various ways, I don't think they are enough to narrow the gap due to the problem of application in actual education field. In addition,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s mostly presented as just cramming and knowledge learning.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link with the field by supplementing with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hrough discussion, considering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balanced critical thinking education of theory and field.

Chapter II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critical thinking, and a literary discussion.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definition and elements of critical thinking based on what was deemed necessary in existing studies and debates, and then demonstrated the premise that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critical thinking through reading literary works and debating. I has defined this critical thinking as 'the power to have an extended vision by acknowledging that there is an error, finding objective information while accepting various views flexibly, and further integrating various ideas'. Based on this, five elements of critical

thinking were presented as 'sound skepticism', 'diversity', 'objectivity', 'superior identifiability', and 'integrity'. In addition, this study defined literary discussion as the process of reading and discussing literary works, and presented the procedures as simply 'reading text', 'presenting a topic', 'discussing', 'role-changing and discussing', 'writing', and 'checking'.

Chapter III explains how to apply it to actual education settings based on the critical thinking, its elements, and discussion procedures presented in Chapter II.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fairy tales from the literature and conducted three lessons for middle school learners. The fairy tale was chosen so that they could communicate with ease and feel comfortable, as I concluded the learners have no sufficient experience on the discussion activity.

In Chapter IV, the less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procedure of chapter III and analyzed according to critical thinking components. Overall, the learners of the research group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urse of each experiment, and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critical thinking abilities were gradually cultivated through reading literary works and various communication, that is, discussion. When I divided the learners' comments by each critical thinking element, more positive changes were found in the last experiment compared to the first one.

Based on these results, Chapter V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new value by connecting useful facts and developing thoughts with various literary works as a method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at since each are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has a close relationship and

is connected organically with our life, the areas should be utilized at the same time and that a curriculum suitable for a certain design should be constructed.

Not all participants in the study group showed positive changes in the way of discussing to foster the critical thinking presented in this study. However, in general,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rners showed some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whole experiment. Although they had difficulties with discussion itself at first, they were able to adapt to the discussion and accept it more easily after three repeated experiments. Moreover, through discussions, the participants tried to not only check errors by understanding other people's thoughts as well as their own thoughts, but also find more objective bases. Finally, it is believed that the method of discussion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of learners in that it is a process of thinking about not only their own thoughts and others' thoughts, but also better thoughts.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critical thinking, literary discussion, integration